



[경제종합]  
삼천피·천스닥 붕괴  
흔들리는 증시  
3일 FOMC 분수령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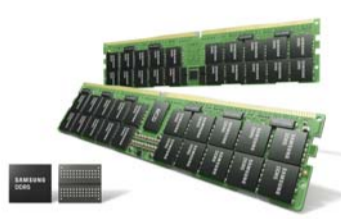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970.68 (0.00)	코스닥	992.33 (0.00)
금리 (미국 3년)	2.103 (+0.086)	환율 (원·달러)	1168.60 (-1.10) (10.29)

# D램값 하락 현실화... 메모리 반도체 흑반기 온다

10월 D램값 전월비 10% ↓  
반도체 쇼티지로 수요 급감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예상  
공급가 차이, 장기계약 늘어  
당장 실적에 큰 영향 없을 듯



삼성전자 14나노 D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3 D램 /SK하이닉스

D램 가격이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운 사이클'이 시작했다는 분위기,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 실적 하락은 최소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0월 PC용 D램 고정거래 가격은 DDR48Gb 기준 평균 3.71달러였다.

전달(4.1달러)보다 10% 가까이 떨어진 것. D램 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메모리 시장 불황이 한창이던 2019년 7월(-11.18%)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다. 앞서 트

렌드포스가 4분기 D램 가격이 최대 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크다.

D램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쇼티지 때문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모자란 탓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면서 수요도 크게 줄었다. 아울러 DDR5 규격 도입을 앞두고 서버 업체 등도 재고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도 진정되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비대면' 수요도 대폭 감소했다.

애플 아이폰13이 출하량 목

표를 10% 이상 축소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S21 FE 등 새로운 모델 출시를 취소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상황이 나빠졌음에 공감했다. 최근 진행한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SK하이닉스는 수요가 줄어들고 고객사도 재고 소진 계획으로, 삼성전자도 변수와 상황에 대한 시각차로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공급난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스마트폰 등 주요 세트 제품 생산량이 더 줄어들 예정, PC와 서버 업계도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재고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운사이클이 당장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고정 거래 가격이 실제 공급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서다. 장기 계약도 많아져 가격 하락 충격이 당장 실적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일찌감치 준비도 끝마쳤다. 3세대 10나노(1z) 공정 비율을 대폭 확대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한 상태, 4세대 10나노(1a) 양산도 본격화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재고 수준도 최소화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

메타버스는 글로벌 공룡 기업 뿐만 아니라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IT, 경제, 문화, 정치 등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앱을 설치하고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페토월드'에 입장하면 공항, 교실, 파티 룸 등 '맵'을 통해 다양한 세상과 만날 수 있고, 가상의 한강공원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활동하게 하는 AI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AI로 가상인간을 만들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거나 AI 모델, AI 유튜브, 심지어는 AI 아이돌로 데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가상인간인 이마는 지난해 8월 이케야가 도쿄에 새롭게 매장을 내자, 3일간 이케야 가상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상의 모습을 유튜브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와 AI는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메타버스와 AI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 살펴봅니다.

- 주 제 :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
  -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온·오프라인 병행)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 기조강연 : 박상용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
  - 강 사 : 박외진 아크릴 대표,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온라인 접속 : 이메일 등록하면 신청자에게 해당 이메일로 접속 URL 공지
  - 문 의 : 제6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병원·노래방 등 '방역패스'

수도권 사적모임 10명까지  
감염 취약시설은 밤 12시까지

11월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지난 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21개월 만이다. 첫 단계 방역완화로, 수도권은 10명까지 사적인 모임이 가능하며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관련기사 3면>

10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확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 계획에 따라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

우선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규제가 모두 사라지고 24시간 영업을 가능케한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새벽 영업도 가능해지지만 정부는 31일 헬러데이 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해 시행시점을 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모임은 접촉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을 감안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로 제한했다.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일명 '방

역패스'가 도입된다.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등 고위험 시설과,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제도 기간이 주어진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 14일까지 2주간은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연제든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는 상황을 대비해 비상계획도 조치가 완화되므로 환자 발생을 가동한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최근 일주일 평균 병상가동률이 70%를 넘는 경우 위드 코로나를 중단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차 개편에 상당히 많은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므로 환자 발생을 전망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성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500만명 이상 남아있고 겨울철 실내 전파가 확산하는 데다 연말연시까지 앞두고 있어 각종 회식과 모임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내년 대선 '4자 구도'로 출발  
▲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로 1인당 30~50만원은 지급해야" /사진 뉴스1

▲ 홍준표 "박근혜출당 사과,朴·MB 사면... 정권 되찾겠다"  
▲ 이인영,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면담... 대북 인도협력 논의



▲ 유승민 "대선후보 되면 안철수와 단일화 추진할 것" /사진 뉴스1  
▲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김병관 전 의원 임명